

시로 읽는 성보순례  
세상에서 제일 큰 집  
해인사 정경판전  
조선시대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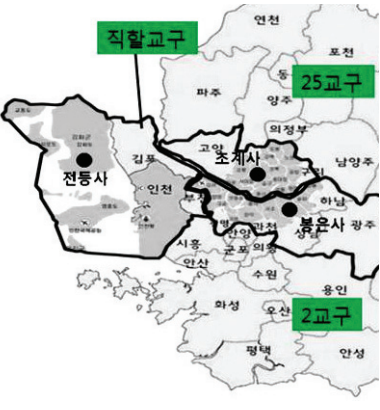
일을 하되 게으르지 말며  
재물을 미리 모으고 쌓아  
궁핍할 경우를 준비하라.  
『장아함경 제11권』

## 구멍 난 수도권불교 해법은 '지역 세분화'

불교사회학, '강북·강남·인천' 분구案 주목

현재 2012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약 2천 5백만 명. 대한민국 1/3의 인구가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불교에게는 포교 전략상 어느 곳 보다 중요하지만, 수도권 불교는 현재 고위 위기다.  
2005년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중 불교를 믿는 비율은 약 16%. 반면, 개신교는 23%, 천주교는 13%에 이른다. 개신교와는 7%가량의 격차가 나고 천주교는 3% 차이로 바로 턱 밑까지 쫓아왔다.  
이 같은 열세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등 서울 'Big4' 지역에서는 더욱 도드라진다. 강남구의 경우 불교 인구는 15% 정도로 개신교(23.4%), 천주교(20.6%)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 서남권의 중심인 양천구 역시 천주교에 뒤처진지 오래다. 이는 불교가 사실상 수도권 2위 종교로서의 위치도 위태롭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연구소(소장 법안)가 내는 '수도권 불교 활성화 방안'은 서울·경기지역 불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수도권불교 활성화 방안'으로 △공백 지역 최소화를 위한 명확한 교구 획정 △직할교구 세분화 △직할교구 행정조직체계 확립 △교구중회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교구 9개市 공백지역  
신도시 종교용지, 불교 '無'  
3개 교구·18개 지역 나누고  
지역별 전담 사무처 신설해야  
총무원 집행부 결단이 관건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인천을 담당하는 직할교구의 분구(分區)다. 불교사회연구소가 제안한 분구 방안은 하나로 통합된 기존 직할교구를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서울 강북 △봉은사를 중심으로 한 강남 △전등사를 중심으로 한 인천으로 나누는 것이다.  
큰 틀에서의 직할교구를 대리구 형식으로 세분화하고 교구본사대리사를 지정해 짜임새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각 교구본사대리사찰에는 교구업무만을 관장하는 교구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대화적 의제를 기만하게 대응할 상설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하자는 게 불교사회연구소의 제안이다.  
이와 함께 분구된 지역을 다시 2~3개 지역으로 묶어 총 18개 지역

을 지정하고 연합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불교사회연구소 법안 스님은 "현재까지는 각 사찰이 자신의 역량껏 각자도생해 왔다"며 "중앙 종단, 교구 본사, 교구 사무처, 지역 말사, 세부 위원회로 이어지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게 이번 방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할 교구를 분구하고, 지역별로 나누고 이를 담당할 지역사무처를 신설·확대하면 관리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다"며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사찰들의 위계 구조와 역할 분담 체계가 정립되고, 지역 단위부터 교구단위까지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구중회 활성화도 수도권불교 발전 방안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직선직 교구중회의원을 늘리고 △교구본사 소유재산 처분 등의 △교구본사, 각급 산하기관 감사 △본사 산하 기관장 불신임 결의 등 교구중회의의 심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자는 게 불교사회연구소의 주장이다.  
또한, 직할교구 비소속 사찰 관리를 위해 교구 중회에서 타교구 사찰 주주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놴다.

이 같은 활성화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도 적지 않다. 최대 40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담 사무처, 지역사무소 설립 비용과 상당 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구 전반적인 문제를 제도화 하는 교구법 제정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안 스님은 "190회 중앙총회 결의로 분담금 납부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무원 집행부의 결단"이라며 "수도권불교는 벼랑 끝에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현실화 하더라도 조계사 중심을 중심으로 한 강북 교구를 시범 모델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선원장 묘공당 대행 선사의 49재가 7월 9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들과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전국 각 지역에서 사부대중 1만 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제공=한마음선원

##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 49재 봉행

7월 9일 사부대중 1만여 명 참석

5월 22일 원적에 든 한마음선원 선원장 묘공당 대행 선사의 49재가 7월 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49재에는 한마음선원 문도와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등 1만 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49재는 BBS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진행자 정목 스님의 사회와 조계종 원로의원 세민 스님, 조

성법문, 음성공양, 헌화와 이산장 동회 스님의 청혼 순으로 진행됐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스님은 이 시대의 문수보현보살의 화신이고 현대포교의 화신이었다"며 "스님은 생활법문으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문화·청소년 포교로 큰 장(場)을 이루었다. 다시 큰 보살로 환생하시어 온 세상에 감로의 비비를 내려주소서"라고 추모했다.  
1만 대중은 대행 스님의 육성법문을 다시 들으며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날 한마음선원은 49재 봉행 후 대중에 대행 스님 추모집 <만공에 핀 꽃은 청산을 울리고>와 스님의 법문을 담은 CD를 법공양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관련기사 16·17면

## 부처님 가피 입고 금메달 획득하세요

불교계, 런던올림픽 선전기원 행사 잇달아

'2012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10일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한국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2012년 런던올림픽 선전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이기홍 런던올림픽 선수단장, 이경훈 대한체육회부지연협회 회장 등 런던올림픽 출전 불자선수단이 함께 참석했다.  
이기홍 선수단장은 "현재 런던올림픽 텐텐(금메달 10개, 종합순위 10

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메달 후보 선수 중 불자선수들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며 "금메달 획득과 더불어 불법을 널리 호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법에서 "몸은 마음가짐대로 따라가기 마련이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올림픽에 앞서 부처님 가피로 마음가짐을 굳건히 해 선수들이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면에 계속



7개 종교의 수장들이 7월 10일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은 함께 모여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897호 INDEX	
종단 한국불교 문제점 대화마당	2
종합 김신 대법관 후보 종교편향 물의 종교단체 평생교육원 설립 토론회	3
시방세계 조계종 출가학교 회향 현장	5
부처님 십대제자에게 배운다 14 사리불 <하>	14
법정 스님을 만난 사람 18·19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18-19
문화 산사 추억-윤후명 소설가	20

# '불교닷컴' 언제까지 진실을 감출 생각입니까?

불교닷컴은 충격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교묘한 수법을 동원한 대규모 매출누락 및 탈세 의혹**  
불교닷컴은 이석만 대표의 명의로 광고비를 청구하고, 돈은 이석만이 대표가 아닌 이사 1인과 감사 1인만 남아있는 유령회사에 가까운 불교닷컴(주) 수령해왔습니다. 이석만의 불교닷컴과 불교닷컴(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나 중요한 점은 양측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영업을 함으로써 지난 5년간 최소 수 억원으로 추정되는 광고 매출을 누락시키고 세금을 포탈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별빈자가 대표로 있는 (사)불지회와 수상한 금전거래 의혹**  
또 한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불교닷컴이 제주 관음사 사대로 별빈된 김정희(법명 중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불지회를 통해 광고비를 수령하는 등 수상한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입니다. 제보된 자료에 의하면 불교닷컴은 기업, 학교, 정부기관 등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불지회 명의로 광고비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방식의 매출 누락을 시도한 것이 아니기라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등 부당한 방법으로 후원원 모집 의혹**  
불교닷컴은 수 년간 "미디어포교에 매진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불자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마치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것처럼 독자와 후원원을 속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나 불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후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론의 길을 걷고 있는 대다수 교계 언론을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보다 성숙된 불교 언론 문화 조성과 언론사 발전을 위해 신도 대중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호법위원회

